\*저희 중고 경매 사이트 이름은 Used-Auction 줄여서 UA입니다.

**<The Problem>**

중고거래시장은 많이 발전되어 누군가에겐 필요 없는 물건이 다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.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이 있는데, 많은 매물들을 가지거나 위치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.

그러나, 보통의 중고거래에서는 판매자가 물건을 업로드할 때 가격을 정해서 올린다. 이 때문에, 구매자는 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러 사람과 가격흥정을 해야 하고, 네고가 가능한지 채팅을 열고 확인하다 보면 누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상황을 겪게 된다.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한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여러 채팅을 받게 되고 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. 기존의 시스템에서 보완된 UA는 ‘개인 경매’ 시스템으로 구매자의 편의성을 높여주고, 판매자의 부담 또한 덜어줄 것이다.

**<Scenarios>**

UA에 들어가면 관리자(admin)와 중고거래 사용자(user) 2가지 형태의 join user type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관리자는 지정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따로 관리자가 사용이 가능한 Navigation목록이 화면에 추가가 된다. 해당 Navigation목록을 통해 가입한 사용자들의 정보 목록을 볼 수 있다. 그리고 열람하고 싶은 사용자의 정보를 아이디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.

중고거래 사용자(user)는 판매자와 구매희망자로 나뉠 수 있다. 먼저, 판매자는 판매할 물건을 업로드하고 판매 기간, 상한가, 시작가를 정하여 입력한다. 그 이후에,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일반 경매와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하게 된다. 정해진 기간이 완료되면 판매자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 또는 지정된 상한가를 입력한 사람과만 1대1 채팅이 열리게 된다.

구매자는 중고 물품을 고를 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매물을 찾을 수 있다. 물건 별 카테고리를 통해 찾을 수 있고, 지역 별 카테고리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우선적으로 볼 수도 있다. 입찰자들이 많은 인기 매물을 볼 수도 있으며, 구매자가 관심있게 봤던 물건들을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매물을 확인할 수도 있다. 이러한 방식으로 고른 물건들을 선택하여 관심목록을 만들 수도 있다.

거래가 끝나면 사용자들끼리 서로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. 이 제도를 통하여 매너있는 사용자를 칭찬하거나 피해를 주는 사람을 신고해 사기나 비 매너 행위를 방지할 수도 있다. 이러한 평가와 거래 완료 비율을 토대로 만들어진 등급으로 유저들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.